5·18 30주년 행사 어쩌라고…

정부, 5월단체 요구 예산 168억 중 고작 7억원 반영

20여개 행사 개최 불투명

5·18 민중항쟁의 전국화·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한 광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가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 열릴 이 행사에 포함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단순 일회성으로 간주해 광주시, 5월 단체가 요구한 행사예산 168여억원 가운데 7억여원만 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6일 5·18 기념재단과 조영택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 1차 심의에서 광주시, 5월 단체 등이 요구한 광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예산 168억원 가운데 무려 161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내년 30주년을 맞아 개최 예정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소관 20여개 행사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5·18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자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당초 요청한 예산 88억5천만원은 13억으로 삭감돼 기획재정부로 넘겨졌으나, 1차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의 1차 심의안이 추후 심사에서도 유지되면 5·18민주화 운동 30년 화보집 발간, 아시아 시민 음악제, 5월 30주년 기념행사는 치를 수 없게 된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행정안전부에 반영을 요청한 예산 10억원도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전야제, 대동한마당, 문화예술제, 학술대회, 홍보기획 등 5개 행사에 대해 7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으나, 모두 행사성 경비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5월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 요청된 예산 70억4천300만원 가운데 반영예정인 예산은 7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5월 단체들이 기획한 행사는 모두 22건이었으나, 정부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8건이다.

특히 광주항쟁의 국제화를 위해 기획된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현지 홍보 국제행사, 아시아인권 사회포럼, 전국 5월 관련 단체 기념행사 등이 치러지지 못할 전망이다.

조영택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삭감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5월 광주항쟁을 기념하는 30주년 기념행사가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정치권은 물론 광주시에서도 5월 30주년 행사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건강검진 부당청구 최다

적발률 19.7% … 광주는 10.9% 6번째

건강검진 부당청구기관 적발 건수와 환수 결정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울산, 강원, 전북, 경남, 광주 등이 2009년 기준으로 10%가 넘는 적발률을 기록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 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2007년 270개 기관(1만7천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만3천886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5월말 현재 586개 기관이 적발돼 이미 지난 해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5월말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6천409곳으로 이중 9.1%인 586개 기관(6만9천217건)이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됐다.

이중 지역별로는 전남이 19.7%(213개중 42개 적발)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적발률을 보였으며, 광주는 10.9%(211개중 23개)로 6번째였다.

손 의원은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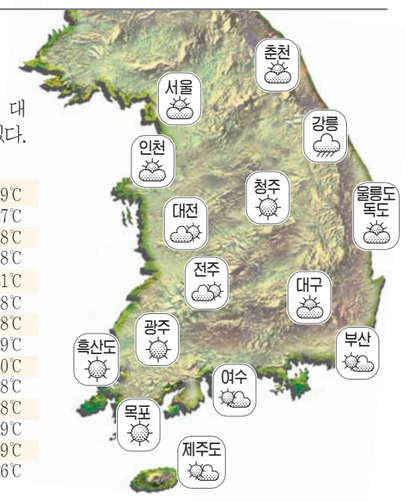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9분 해짐 18시 51분 달뜸 19시 50분 달짐 08시 26분

완연한 가을 '백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다.

광 주	구름 조금	21/29℃
목 포	구름 조금	20/27℃
여 수	맑은 뒤 흐림	21/28℃
완 도	맑은 뒤 흐림	22/28℃
구 례	맑은 뒤 흐림	21/31℃
해 남	맑은 뒤 흐림	21/28℃
장 흥	맑은 뒤 흐림	21/28℃
고 흥	맑은 뒤 흐림	18/29℃
순 천	맑은 뒤 흐림	21/30℃
영 광	맑은 뒤 흐림	20/28℃
진 도	맑은 뒤 흐림	21/28℃
전 주	흐린 뒤 맑음	20/29℃
남 원	흐린 뒤 맑음	18/29℃
흑산도	구름 조금	21/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북서~북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03:39 16:01	08:46 21:03
여수	10:27 22:34	04:08 16: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날 씨						
최저/최고	20/28	18/28	18/28	17/28	17/27	18/27

"포충사 탐방로 오세요"

6일 광주시 남구 포충사 인근 생태탐방로에서 주민들이 산림욕을 즐기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 6월 사업비 7억원을 들여 편백나무 숲이 있는 남구 제봉산~포충사~광주종합콩센터 구간(1.4㎞)에 탐방로를 개설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지하철 학동·증심사입구역에

저탄소 환경테마관 개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8일 광주시 동구 학동·증심사입구역에 저탄소 환경테마관을 개관한다.

광주시와 사단법인 메트로엔젤, 푸른광주21협의회의 등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저탄소 환경테마관은 ▲'함께하는 탄소 저감 실천' ▲'지하철 이용과 탄소 저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 3개의 테마로 꾸며졌다.

'함께하는 탄소 저감 실천'관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장면을 연출하고 탄소 저감 실천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며, '지하철 이용과 탄소저감'관에서는 지하철 이용에 따라 어느 정도 탄소가 감량되는 지를 실제로 보여준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관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리와 방식을 소개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인 자전거 동력 발전, 태양광, 풍력 발전 등에 대한 시청각 자료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또 환경테마관 맞은편에는 '무등산 사랑 전시관'을 둬 무등산의 유래와 문화재 자료, 무등산의 4계절 전경 사진 등을 전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출소예정자 '중간처우의 집'

순천교도소 등 4곳에 설치

교도소 출소 예정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중간처우의 집'이 순천교도소를 비롯한 전국의 교도소 4곳에 추가 설치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1월께 순천·춘천·마산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중간처우의 집'을 설치키로 했다.

중간처우의 집은 교도소 담 밖에서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 10명 정도가 생활하는 건물로, 수형자들은 주중에 외부 업체로 출·퇴근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 주말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1박2일간 집에 다녀올 수 있고, 가석방 직전에는 거처와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4박5일간 외출도 보내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